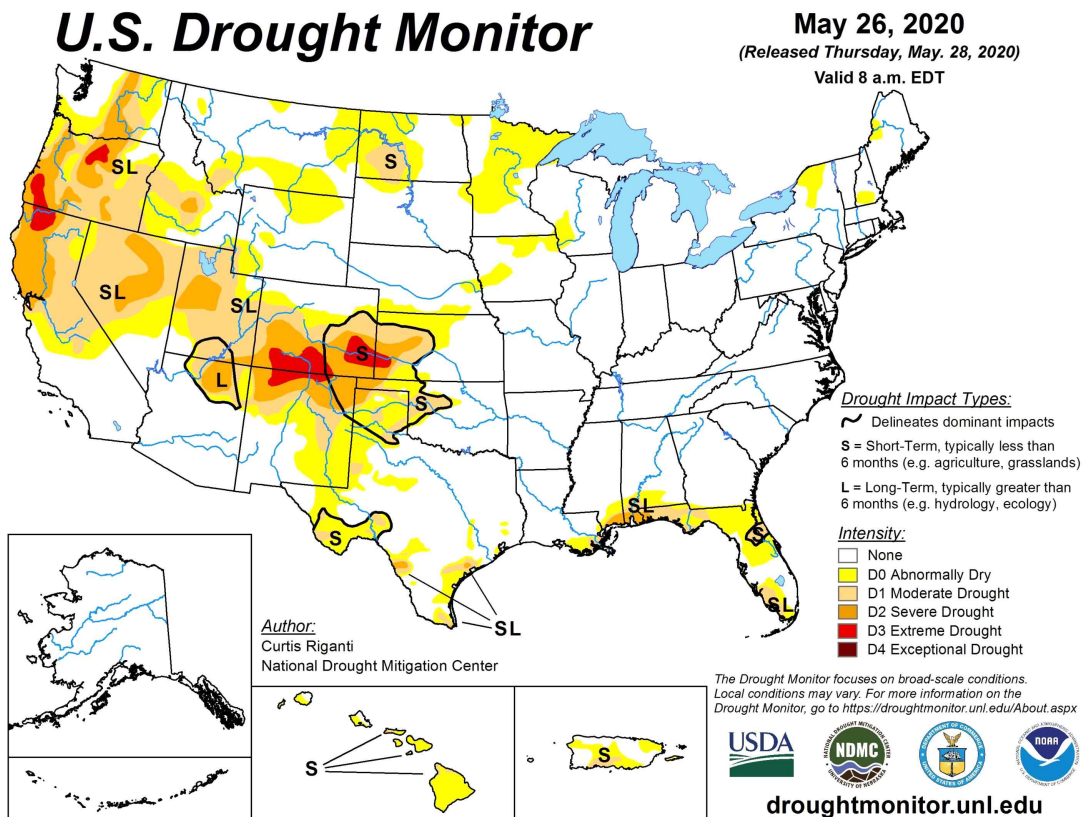


6월 2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7, No. 22)

□ 미국 기후 현황(5/24~5/30)

전국 동부 절반 전체에 광범위한 소나기가 내려서 여름 작물에 대해 대체로 유리한 조건을 유지했지만 지역의 야외 작업은 지연되었다. 열대성 폭풍 베르타와 관련하여 폭우가 내렸는데, 공식적으로 발달하여 나중에 캐롤라이나를 가로질러 내륙으로 움직이기 전에 플로리다주 남부 일부를 흠뻑 적셨다. 그러나 대서양 연안 북부를 포함해서 몇몇 지역은 비가 내리지 않았다. 한편, 평원 북부 전체와 서부 대부분에는 비가 거의 또는 전혀 내리지 않아서 야외 작업과 작물의 발달을 촉진했으나 토양 수분 보유량은 줄었다. 북캘리포니아와 태평양 북서부는 예외였는데, 주 후반에 시기상 비정상적으로 심한 소나기들이 내렸다. 그 외에, 평년보다 시원했던 미국 중남부를 제외하면 나라 전체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높았다. 캘리포니아부터 인터마운틴 웨스트 북부까지, 그리고 오대호 아래쪽 지역부터 뉴잉글랜드 북부까지 여러 곳에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10° F 이상 높았다. 대조적으로, 남부 평원은 평균 수치가 평년보다 5° F 정도 낮았다.



## □ 농업 현황 요약(5/25~5/31)

미시시피 계곡, 남동부 및 텍사스 동부의 대부분에 비가 평균 강수량 이상으로 내렸다. 남 플로리다와 남캘리포니아 일부에는 6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대조적으로, 콜로라도와 태평양 북서부 일부를 제외하면 나라의 서쪽 절반 대부분은 여전히 건조했다. 대평원, 미시시피 강 하류 계곡 및 텍사스 대부분을 포함한 넓은 구역은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다. 한편, 오대호, 뉴 잉글랜드 및 서부 지역 대부분은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5° F 이상 높았다.

## □ 세계 기후 현황(5/24~5/30)

## ■ 유럽:

서부 재배 지역은 날씨가 점점 건조하고 따뜻했던 반면 동부는 시원하고 소나기가 내렸다. 넓은 면적의 고기압으로 서유럽의 하늘에는 햇볕이 들었고 기온은 평년 부근이거나 평년보다 높았다 (평년보다 1~3° C 이상, 이베리아 반도는 평년보다 5° C 이상). 최근에 비가 내렸던 스페인, 프랑스 및 남독일에서는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가 종실비대-성숙 중인 겨울 작물에게 유리했는데, 영국부터 독일 북서부까지는 가뭄이 더욱 심해졌다. 결과적으로, 더 북쪽에 있는 이들 재배 지역에서 겨울 밀과 유채에 대한 수확량 전망이 빠르게 떨어졌지만, 남쪽으로 갈수록 조건이 나아졌다. 반대로, 정체되어 있던 교란이 유럽 대륙 동부 절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광범위한 소나기와 뇌우 (10~85 mm)를 일으켜서 생식기(북쪽)-종실비대기(남쪽) 중에 있는 겨울 작물들에 대한 수확량 전망을 더욱 개선하였고 출현기-영양기 중에 있는 봄 곡류와 여름 작물들에게 계속 수분 공급을 잘 해주었다. 하지만, 평년보다 최대 5° C 낮은 기온이 최근의 빨랐던 작물 발달 속도를 다소 둔화시켜서 현재는 겨울 밀과 유채의 발달 정도가 예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서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에 있었다.

## ■ 구소련(서부):

계속된 광범위한 소나기가 이전에 건조했던 남러시아 지역에 유익한 수분을 공급했다. 2주 연속 남러시아에는 아주 필요했던 소나기와 뇌우 (10~25 mm)가 일어나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에 있는 겨울 밀을 위해서 수분 공급량을 더욱 개선했다. 러시아 남서부에서 지난 30일간 (밀이 생식기를 지나는 기간과 일치)의 강우 총량은 거의 평년 수준이었으나 장기간 (90일 강우량은 평년의 60% 미만)으로 보면 수분 결핍 상태가 계속었다. 더 먼 서쪽은, 중서부 흑해 연안부터 벨라루스 남부와 러시아 북서부까지 중간 수준의 비 또는 폭우 (25~90 mm)가 내려서 출현기-영양기 중에 있는 봄 곡류와 여름 작물들은 물론이고 생식기의 겨울 작물들을 위한 수분 저장량을 적당하게 또는 풍부하게 유지했다. 러시아의 불가 지구의 서쪽 절반에 걸쳐 평년보다 최대 5° C 낮은 기온은 작물의 발달을 늦추었는데, 동쪽 절반은 여름처럼 뜨거운 열 (31~35° C)이 증발산율을 증가시켰다.



■ 동아시아:

중국의 몇몇 주요 여름 작물 지역들은 이 기간 동안 유익한 강우가 내렸다고 보고했다. 양쯔강 남쪽에 내린 호우 (25~10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는 단작 벼의 활착을 도왔는데, 북동쪽 (주로 하이룽장 성)에 내린 다소 약한 비는 옥수수과 콩의 활착에 유리했다. 한편, 황하와 양쯔강 사이에 뜨겁고 (35° C 이상) 건조한 날씨가 유채와 밀의 성숙을 진전시켰다. 더 먼 서쪽으로 신장은 기온이 평균보다 3~5° C 높았고 스트레스 성 열도 없어서 면화의 발달이 촉진되었다. 기타 지역으로 한국과 일본 대부분은 날씨가 대체로 건조했고 북한에는 25~50 mm의 강우가 기록되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한반도와 일본에서 수분 조건은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서 벼에게 유리했고 훨씬 좋았다.

■ 호주:

비교적 건조하게 재배기를 시작한 서호주의 밀 벨트에 적시는 비 (15~3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내려서 표토의 수분이 상승되었다. 그 비는 밀, 보리 및 캐놀라의 발아와 출현을 도왔고 그 결과 겨울 작물의 추가 파종을 유발시킨 것 같다. 밀 벨트 내 다른 곳으로 남부와 동부 호주 전역에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하늘이 맑고 토양 수분이 적당하거나 풍부하여 겨울 작물의 출현과 활착이 촉진되었고 겨울 곡류와 유지 작물들에 대한 이른 철수확량 전망은 계속 양호했다. 이런 건조한 날씨는, 여름 작물의 최종 수확을 포함하여, 야외작업에도 유리했다. 전국 밀 벨트에서 평균 기온은 평년 부근 (평년의 1° C 이내)에 있었다.

■ 아르헨티나:

건조하고 때때로 따뜻한 날씨 덕분에 가을철 야외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부에노아이레스 최남단에 산발적으로 가볍게 내린 소나기 (지역적으로 5 mm 이상)를 제외하면, 주요 농업 지역들이 모두 완전히 건조했다.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높았고, 낮 최고 기온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부에는 높은 섭씨 10도대에서 낮은 20도대에, 포르모사 내부와 주변에는 낮은 30도대에 있었다. 아르헨티나 중부와 남부 모두, 많은 생산지에서 서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볼리비아와 파라과이의 국경처럼 먼 북쪽은 밤 최저 기온이 2° C 또는 그 이하로 떨어졌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5월 28일 현재 옥수수는 작년 (51%)보다 빨라서 61% 수확되었는데 콩은 거의 다 수확되었다 (95%). 면화는 작년의 53%와 비교해서 81% 수확되었고 밀 파종은 작년보다 훨씬 앞섰다 (작년의 5% 대비 20% 파종됨).

## ■ 브라질:

남브라질은 건조하고 햇볕이 잘 드는 날씨로 다시 돌아와서 밀 파종에 유리하게 되었고 아주 필요했던 비가 내린 지 2주가 지난 지금 옥수수의 성장을 촉진했다. 마토 그로소 도 술과 상 파울로에서부터 남쪽으로 리오 그란테 도 술을 지나기까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0~3 mm). 그런 건조한 날씨에 평년보다 시원한 날씨가 동반되었는데 밤 최저 기온은 섭씨 한 자리 수로 떨어졌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5월 25일 현재 2차 작물 옥수수는 2% 수확되었고 나머지 옥수수의 67%는 종실비대기-성숙기 중에 있었다; 밀은 63% 파종되었다. 리오 그란테 도 술에서는 밀 파종이 시작되었다고 알려졌다. 더 먼 북쪽도 날씨가 시원해서 몇몇 사탕수수 및 커피 생산 지역들을 포함하여 상 파울로와 미나스 게라이스 일부에는 밤 최저 기온이 5° C 이하로 떨어졌다. 미나스 게라이스에서부터 북쪽으로 바이하 서부와 토칸틴스를 지나기까지 가볍거나 적당한 비 (5-10 mm 또는 그 이상, 지역적으로 25 mm까지)가 내렸는데 옥수수 수확 초기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고이아스와 마토 그로소는 좀더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